

HRI 체어퍼슨노트

# CHAIRPERSON NOTE

2012.10.15 (통권421호)



## 경제이슈

IMF, 세계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한은,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 경영노트

기업의 세 가지 채용오류

## 사회 트렌드

서울 도시경쟁력 세계 14위  
세계평화지수 8년 만에 최저

## 저널 브리프

특허분쟁 패배가 주는 교훈

## 洗心錄

선시어외(先始於隗)

□ IMF, 세계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 IMF는 10월 9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2012년과 2013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3%, 3.6%로 이전 보다 각각 0.2%p, 0.3%p 하향조정
  - 세계 경제 : 세계경제 회복세의 지연으로 2012년 경제성장률을 7월 전망 3.5%에서 3.3%로, 2013년은 3.9%에서 3.6%로 하향조정
  - 선진국 경제 :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경기 침체 지속으로 2012년 1.3%, 2013년 1.5%로 7월 전망 대비 각각 0.1%p, 0.3%p 하향조정.
  - 신흥국 경제 : 선진국 경기부진이 국제교역 및 금융시장을 통해 신흥국 경제에 악역향을 미쳐 2012년 5.3%, 2013년 5.6%로 7월 전망 대비 각각 0.3%p, 0.2%p 하향조정
- 금번 전망치는 미국 ‘재정절벽’(fiscal cliff)과 유로존 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 도출을 전제한 것으로 이러한 불안요인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내년에도 글로벌 경기 침체는 지속될 가능성 존재

□ 한은,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 한국은행은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3.0%)보다 0.6%p 낮은 2.4%로 수정하고, 2013년은 0.6%p 낮춘 3.2%로 하향 조정
  - 소비 : 2012년 민간소비는 대외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7월 전망치인 2.2%에 비해 0.5%p 하향 조정된 1.7%로 전망
  - 투자 : 2012년 설비투자는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높은 불확실성으로 1.5% 성장하여 성장세가 둔화, 건설투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경기 위축으로 0.2% 성장에 그칠 전망
  - 대외거래 : 2012년 상품수출은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 둔화 지속과 선박 등 주요 품목의 수출 부진 등으로 3.4% 성장에 그칠 전망
- 한국 경제는 내수 경기 침체와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당분간 경기회복 속도가 완만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어, 경기 부진에 대응한 내수 활성화와 수출 증대 노력이 시급함

□ 기업의 세 가지 채용오류<sup>1)</sup>

- 기업의 채용 문제에 있어서 명확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지만 확실한 오답은 존재하기 때문에 오류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
  - 채용담당자가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거나 세대차와 창의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뽑아야 할 인재를 선발하지 않고 뽑지 말아야 할 사람을 선발하는 오류 발생
- 기업의 채용 오류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하나를 줄이려 노력하면 다른 오류의 가능성이 커지는 상충관계에 놓여 있음

<기업의 세 가지 채용오류>

	내 용
<b>1종 오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종 채용 오류는 반드시 뽑아야 할 핵심 인재를 놓치는 경우</li> <li>• ‘문제아’와 ‘혁신인재’는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너무 촘촘하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만 고르다 보면 혁신인재를 놓치는 오류 발생</li> <li>• 대학 졸업자 다수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뽑지 말아야 할 사람을 일부 뽑아도 조직에 큰 영향을 주기 않기 때문에 1종 오류 방지가 중요</li> <li>• IT나 항공우주산업, 방송·연예 등 첨단 아이디어 산업에서는 꼭 필요한 인재를 놓치는 1종 오류 방지가 중요</li> </ul>
<b>2종 오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종 채용 오류는 채용해서는 안 될 사람을 뽑아 회사가 곤란해지는 경우</li> <li>• 기업이 아무리 신중하게 사람을 고르고 정밀한 프로세스를 만들어도 ‘문제아’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게 마련</li> <li>• 조직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영업직 임원이나 리더를 채용할 때는 충분한 검증 절차를 통한 2종 오류 예방이 필요</li> <li>• 금융, 법률, 컨설팅, 언론 등 신뢰가 중요한 산업에서는 뽑지 말아야 할 사람을 뽑는 2종 오류 방지가 중요</li> </ul>
<b>3종 오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종 오류는 자신의 회사가 어떤 인재를 필요한지조차 모르는 경우</li> <li>• 자신의 회사에 맞는 인재(Right Talent) 선발이 아니라 최고의 인재(Top Talent) 확보에만 집착하는 순간 3종 오류가 발생</li> <li>• 단기간에 이뤄지는 채용과정 자체에만 집중하지 말고 회사 전체의 인력 구조, 인재상 등 인사제도 전반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파악해야 함</li> </ul>

1) ‘기업생존 좌우하는 채용 어떻게’(매일경제신문, 2012.10.05)와 ‘뽑지 말아야 할 인재 안뽑는 3가지 원칙’(매일경제신문, 2012.10.05)을 요약정리함.

□ 서울 도시경쟁력 세계 14위<sup>2)</sup>

- 세계 주요 27개 도시 중 서울의 경쟁력이 14위인 것으로 평가됨
  - IT(1위)와 교통시설(2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주거환경(25위) 항목에선 낮은 순위에 그침
  - PwC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의 종합경쟁력은 지난해보다 두 계단 오른 14위로 조사됨
  - 뉴욕이 1위였고, 런던, 토론토, 파리, 스톡홀름,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홍콩, 시카고, 도쿄가 뒤를 이음

□ 세계평화지수 8년 만에 최저<sup>3)</sup>

- 전 세계 각국의 평화 수준을 분석해 측정한 2012년도 세계평화지수가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 세계평화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평화지수는 지난해보다 0.2 감소한 70.1로 나타남. 지수 산정이 시작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
  - 한국은 지난해 67위에서 올해는 41위로 순위가 크게 올라간 반면 북한은 4단계 내려간 127위에 머물러 남북 간 평화 격차는 더 벌어짐
  - 유럽의 경제위기와 중동의 정치적 격변,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등이 지수 하락에 큰 영향
- 국가별로는 평화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인 것으로 나타남
  - 이어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덴마크 순으로 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
  -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국내적으로 불경기와 빈부격차 확대가 계속된다는 이유로 73위에 그침
  - 중국(108위)은 비약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군사·외교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올해도 100위권 진입에 실패

---

2) '서울, 도시경쟁력 세계 14위'(한국경제신문, 2012.10.11)를 요약정리함

3) '세계평화지수 8년만에 최저'(동아일보, 2012.10.11)를 요약정리함

□ 특허분쟁 패배가 주는 교훈4)

- 지적 재산권 분쟁에서 패배한 기업들의 공통점 5가지를 제시함
  - 최근 한국 기업들에 대한 노골적 견제로 무역분쟁·특허소송·영업기밀 소송 등이 증가하고 있음
  - 우수한 제품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패배하는 한국 기업 사례가 증가
- ① 제조업 패러다임에 간힘 : 토머스 프리드먼은 기술이 전 세계에 전파된 기술민주주의 시대의 도래를 전망하면서 ‘지식 재산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수용을 요구함
  - 한국 기업은 일반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력을 극대화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지식재산권의 적극적 수용은 미흡하여 혁신기술 창조력이 부족
- ② 지식재산 관리가 허술 : 지식경제에서는 지식재산(특허)이 상품이므로 상품에 하자가 없듯 특허에도 하자가 없어야 함
  - 선행 기술과 중복되거나 특허청구 항목의 문법 오류 등으로 인해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 존재
- ③ 전문가가 부재 : 지식재산권 관리를 위해서는 기술과 법, 양쪽에 정통한 전문 인력이 필요
  - 한국 기업의 경우 대부분 ‘특허출원·라이선싱’은 엔지니어 중심의 특허 부서, ‘소송’은 변호사 중심의 법무부서로 이원화하여 관리함
- ④ 지식재산권 주장에 소극적 : 지식 재산권 분쟁에서는 적극적인 공격이 곧 최고의 수비로 인식되며 권리 주장에 소극적일수록 특허피물 등으로부터 표적이 됨
  - 한국 기업은 전문가 부재 및 권한 부족으로 선제 공격이 어려워 지식 재산에 대한 적극적 권리 주장에 취약
- ⑤ 현지 법 절차에 무지 : 미국의 경우 증거 수집을 중요히 여겨 증거인멸을 엄중 처벌하므로 관련파일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함
  - 코오롱의 경우 FBI 수사를 거친 형사기소가 있었으면서도 증거를 파기한 결과 영업기밀 도용 혐의로 막대한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음

---

4) ‘돈 뜯기는 한국기업들? 이유 알고보니 ‘헉’”(조선비즈, 2012.10.13) 참조

□ 선시어외(先始於隗)

<史記>에 나오는 ‘선시어외’란 고사성어에는 인재를 구하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곽외부터 기용하다”는 뜻으로서, 구하려는 것을 먼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먼저 가까이 있는 자부터 구하여 시작하라는 것이다.

전국시대 연나라는 제나라와의 싸움에서 대패하고 왕은 죽게 되고 뒤를 이어 소왕이 등극한다. 소왕은 사방팔방으로 인재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때 곽외라는 선비가 찾아온다. 그는 고사를 예로 왕에게 충고한다.

옛날 어느 왕이 천금을 걸고 천리마를 사려고 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천리마를 구하는 일을 하겠다고 자청하는 사람이 나섰고 왕은 그에게 중책을 맡겼습니다. 석 달이 지나서야 겨우 천리마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지만 말은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죽은 말의 뼈를 5백 금에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에 왕은 크게 노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말이거늘, 어찌 죽은 말의 뼈를 사가지고 돌아왔느냐? 5백 금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

그러자 그 사나이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노여움을 푸십시오. 죽은 말을 5백 금이나 주고 샀다는 소문이 퍼지면 사람들은 임금께서 진심으로 좋은 말을 아끼시는 군주로 믿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천리마가 사방에서 모여들 것입니다.” 과연 그의 말대로 1년도 못되어 천리마가 세 마리나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고사를 말한 후 곽외는 왕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진심으로 인재를 구하고 싶으시다면 이 사람 곽외부터 기용하십시오(先始於隗). **재주가 없는 곽외도 왕의 후대와 신임을 얻었다고 하면 저보다 더 훌륭한 인재들이 모두 왕께 의지하려 올 것입니다.**” 소왕은 곽외를 스승으로 삼는다. 이런 일이 있는 후 정말 곽외의 현명한 예언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다. 천하의 인재들이 소왕에게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조나라에서는 명장 악의(樂毅)와 극신(劇辛)이, 주나라에서는 소대(蘇代)가, 제나라에서는 추연(鄒衍)이, 위나라에서는 굴경(屈景)이 연나라로 속속 모여들었던 것이다.

**“성취는 대체로 열망과 기대를 점차적으로 올린 결과다.”**

잭 니콜라우스(1940~ ) : 美 프로골퍼